

요즘 프랑스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사회 하층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새로운 양상의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중동의 갈등이 프랑스 내부로까지 번지는 등 사회 불안이 자못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불안감이 급기야 일부 프랑스인들의 마음에 배타심을 키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수주의 극우파 정당의 후보를 최종 결선 투표 후보로까지 올려놓는 여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금 프랑스는 그 어느 때보다 시사 현안에 예민해져 있으며, 그 현상이 출판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독자 사로잡은 《9월 11일, 잔혹한 사기극》**

그런 와중에 지난 3월 11일, 티에리 메이상의 《9월 11일, 잔혹한 사기극》(카르노출판사)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10만권이 팔렸고, 4월 초 집계에 따르면 20만권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출판 주간지인 《리브르엡도》에서도 베스트셀러를 논평하면서 도저히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빵집에서 바게트 팔리듯 팔린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펜타곤에 충돌한 비행기는 없었다”는, 마치 〈X-파일〉을 연상시키는 음모론 분위기의 부제를 달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내용을 보니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펜타곤 테러는 비행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그 테러는 펜타곤 내부 자소행이며 목표도 국방성 자체가 아니라 해군 작전 본부였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미 정부당국이, 세계무역센터에 CIA 비밀기지가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불법적 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으며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정부의 비밀요원이라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루머를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학을 전공한 저자 티에리 메이상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백악관과 국방성 발표 자료 및 미국 내에서 책임자급에 있는 일반인과

# 자극적인 루머와 방송이 공조해 만든 베스트셀러

방송 탄 테러분석서 출간 일주일만에 10만부 팔려

장석훈 | 출판기획자 · 번역가



사진은 《9월 11일, 잔혹한 사기극》 표지(왼쪽)와 저신의 책을 들고 설명하고 있는 저자.



군인들이 국제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많은 언론들은 한가지 사실에 대한 정보가 모든 사실에 대한 정보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국 한가지 사실에 기초해 씌어진 메이상의 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프랑스 언론사 특파원들도 의외로 자신의 나라에서 9·11 테러에 대한 관심이 이런 방식으로 다시 증폭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책으로 포장한 루머가 팔린 것**

그럼에도 메이상의 책은 프랑스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르몽드》의 스테판 망다르 기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최근의 미국 패권주의 정책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불만과 뿌리깊은 반미 정서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처럼 선풍적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문화예술

관련 화제를 다루는 프랑스 2텔레비전의 인기프로그램 〈모두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에서 메이상의 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데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이들 사이에 책

한권이 10만권이 팔렸다고 한다면 출판시장의 논리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서점인 로랑 보넬리의 말처럼 시사 출판물은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가 공존하기 마련인 문학 출판물과 달리 아주 자극적인 주제의 책이 다른 책을 완전히 압도하는 식이다. 그리고 시사 출판물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책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포장한 루머가 팔린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최대한 많은 사람을 자극시킬 수 있는 루머를 책으로 잘 포장한 뒤, 시청률 높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포장된 루머를 다시 입소문으로 퍼뜨릴 때, 책이 마치 맛 좋다고 소문난 빵집의 바게트처럼 팔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빵으로는 배가 부를 수 있어도 루머로는 배가 부를 수 없듯이 자극적인 루머가 팽배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정신적 허기를 반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프랑스 사람들은 더욱 걱정이 많은 듯 보인다. ■